

세계여성의 날 100년,



사람 · 물건 · 장소

후원 | 여성부 KBS MBC SBS EBS YTN CBS 기독교방송 한겨레 YWCA 여성신문사 서인사출판사 문의 | 02-313-1632



나에게 힐스테이트란

뉴 욕 의 최 고 금 호 텔 에
머 물 러 도 모 자 라 게 느
껴 지 는 포 근 한 그 무 엇



집에 담고싶은 모든 가치


HILLSTATE

 現代建設
www.hillstate.co.kr

모두가 장기투자만 이야기할 때 하나은행은 자산관리에서 든든한 답을 찾았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각자 다른 자산 규모와 인생 계획에 맞춘 다양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자산관리 전문가 하나은행을 만나십시오. 우량펀드, 예금, 채권, PMA 등 폭넓은 방법으로 당신의 자산을 키웁니다.



기증

유로머니 선정 4년 연속
베스트 프라이빗 뱅크

한국경제신문 선정 '2008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 판매사'
"L'art est de racheter de mal voir" Jean-Pierre RAUTSALO, D.C. (2007-2008)

하나은행



나눔의 기쁨은 높은음자리입니다

음악만 있어도 행복할텐데
그 앞에 다시 '행복'이 붙은 학교가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던 친구들과
가르침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음악을 통해 기회를 나누는 학교-
바로 SK텔레콤의 '해피뮤직스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눔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면
반울림 되어 돌아오는 행복.

사람을 향한 행복연주는
아마도 높은음자리인가 봅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함께하는 마음
행복이 더합니다

SK텔레콤 해피뮤직스쿨
(Happy Music School)은

SK텔레콤과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음악을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영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세계적인 연주자로 키워내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 발라드 송영준 - 해피뮤직스쿨의 음악 감독으로서, 2007년 대통령상 수상
2002년 한국지리학회에서 발행한 한국 음악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음악가
* 송영준씨는 본 광고의 모델로 '해피뮤직스쿨'에 기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작은 생각을 크게 키워 주는 일 -
바로 이 나라의 교육이 우리 아이가 살아갈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웅진씽크빅은 '아름다운가게' 후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도서지원, '웅진씽크빅아트홀' 운영, 결식아동 후원, 박혈병 소아암 환자 및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습지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 가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기업 **웅진씽크빅**

세계 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 축제

행사장을
둘러보자!!

시청

새로운 공동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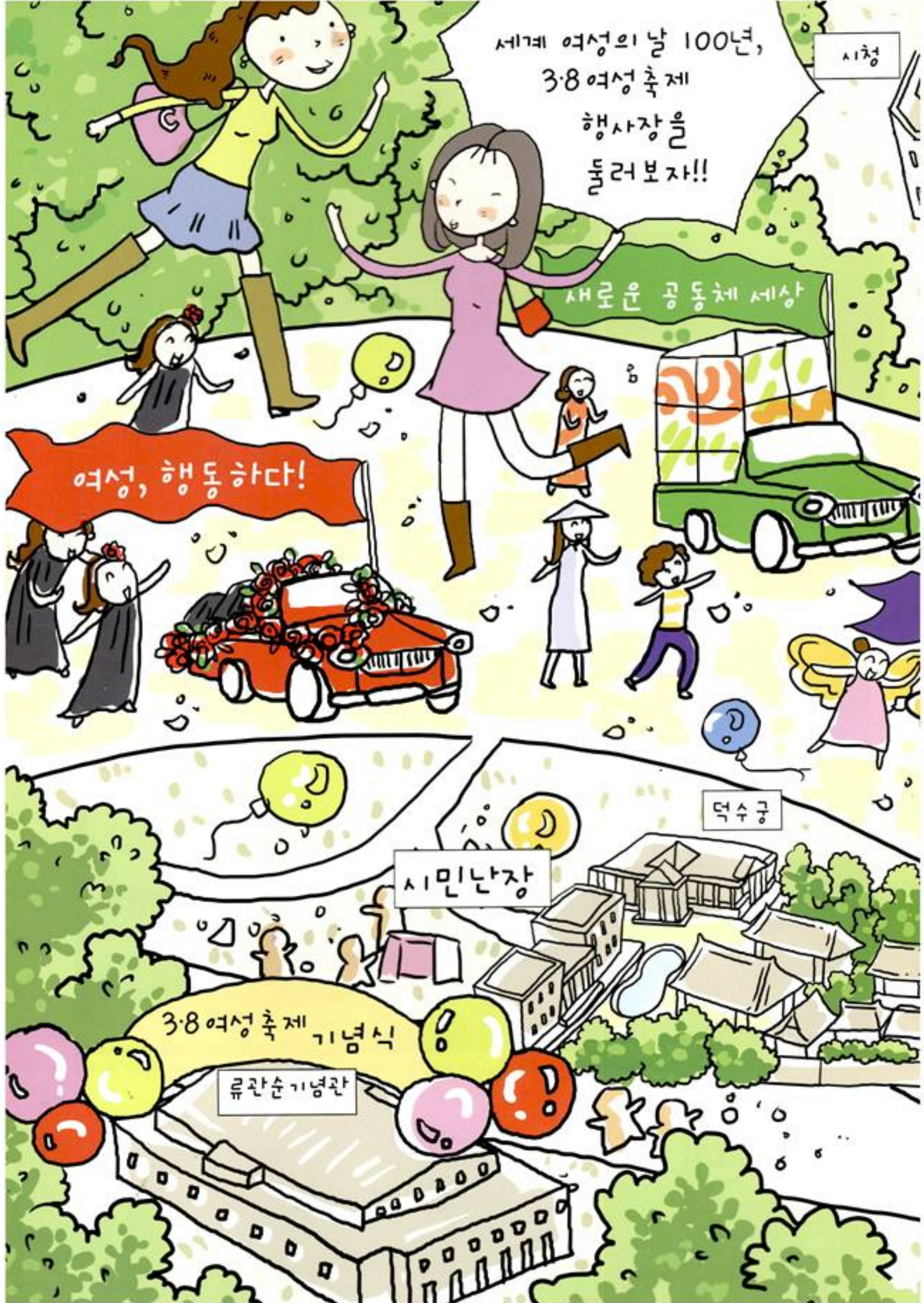
여성, 행동하다!

덕수궁

시민난장

3·8 여성 축제 기념식

류관순기념관





여성의날 유래

08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의 날
여론,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보았

‘세계여성의 날’ 유래와 한국의 ‘여성의 날’

오늘날,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매년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 날의 역사는 말하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20세기 초반에 시작한다.

1908년, 미국 만해탄에서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소속된 여성들이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말하는 여성의 존재와 비중을 미국사회에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한편, 1910년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후 1911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1922년부터 매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중반인 일제시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 ‘조선부녀총동맹’은 1946년과 1947년 3월 1일부터 8일까지 기념주일을 설정해 행사를 열기도 했다. 1948년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어진 후, 1985년 3월 8일에 전국 14개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으며, 1987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창립된 후, 매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2007년까지 제23회 한국여성대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체로 개최되었다. 한편 1988년부터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최하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큰잔치’가 열렸으며, 한국노총은 1996년부터,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전국여성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 여성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열망을 표출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는 행동과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8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가 한 세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 온 노동·여성단체는 세계여성의 날 100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3·8 여성축제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는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Message 인사말

09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를
이전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꿈꾸기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미

여성,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우리들의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지지하고 격려하며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3·8여성축제를 즐기시다.

지난 100년, 우리 여성들은 살며 사랑하며 싸워왔습니다.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싸웠던 여성들의 수많은 투쟁이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었고, 이 날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을 불러일으키고 단결시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투쟁으로 우리 여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땅의 여성들도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해방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지금까지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싸워왔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지난 100여년 끈질기게 싸워온 선배여성들의 눈물어린 투쟁위에 우리들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이 남녀차별인지 모르고, 딱히 여성들이 힘을 모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여성들의 투쟁의 과실을 당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부자든 빈자든 살 자체가 악육감식의 경쟁에 휘말린 채 탐욕과 허기의 노예가 되거나, 경쟁도 제대로 하기 전에 무기력해지거나, 자신을 거부한 세상을 향한 적으로 자신보다 더 악한 존재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 밖만 나가면 무서운 세상을 넘어 집안에서도 외롭고 힘듭니다. 강자독식의 세상은 우리 마음을 불안으로 꽂 채우고 배려 한 조각 깃들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여성이 행복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

지난 100년 여성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며 사랑하며 싸워 온 우리 여성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든, 장애인도, 이주민도, 사람도 자연도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억눌리지 않으며 어울려 사는게 행복이라고 아는 세상, 키우고 돌보는 것을 누구나 기쁨과 보람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다는 것을 일상에서 느끼며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과 사안들로 가득 찬 공동체 세상을 열어갑시다.

200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축제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여성대학교 총장 지은희

여성들의 소망과 열정을 한 데 모아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인권·평등·평화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달려가는 길...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축제가 우리 여성들의 소망과 열정을 한 데 모아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mbassador 강지원

의미 있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00년 동안 여성들의 제자리 찾기에 노력해온 결과 오늘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 측면에서는 최고 수준의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세계에서는 그 같은 차별이 존재하고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세계 여러 후진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아직도 고통 받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로 눈을 돌려서 이 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세계 각국의 여성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또 그들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에서 의미 있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합민주일 국회위원장 한명숙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사회

차별받고 억압받던 여성의 권리를 외쳐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이 땅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대변해 주던 여성가족부는 모든 여성들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여성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차별받고 억압받으며 신음하는 이류 셀 수도 없는 여성들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거짓말처럼 찾아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사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희망찬 세상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함께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교협지구천주교연합 상임대표 박순희

3·8 정신을 실천과 행동으로 무장하는 100년의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린다는 것은 보통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해가 거듭 할수록 더욱 확대되어지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다짐을 하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거부하고, 여성도 인간임을 절규 하며 여성 노동의 중요성과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여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지켜내고 여성간의 연대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일은 국민을 살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내는 기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3·8 여성의 날 기본정신이라면 실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과 함께 대중 속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외면당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과 삶의 현장에서 희망과 자부심이 담긴 3·8 정신을 실천과 행동으로 무장하는 100년의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시사저 발행인/서울대 명예교수 김광웅

여성이 추구하고 공헌하기에 충분하고 아름다운 가치

21세기 여성시대 를 이끌 주인공들의 자아성찰이 바탕이 되어 세상의 사표와 전범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계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100년 동안 나와 남, 여성과 남성,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 되는 전일주의 내지는 온생명주의를 창도하기 바랍니다. 여성이 추구하고 공헌하기에 충분하고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여성들의 질적 발전과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양성평등 사회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여성의 시대를 화두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여성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세계여성의 날 정신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가산점제 부활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여성부의 존폐가 거론되는 등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위협하는 일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 발전이 거듭될수록 화려한 외양 이면에 교묘한 성차별이 자행되고 여성연대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양적 발전에 집착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성들의 질적 발전과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해 힘차게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진에 여성신문이 늘 동행하겠습니다!



모하나의 문학 동반 조한 혜정

3·8 대회를 다시 맞이하며

제게 봄을 알리는 날은 바로 3.8 대회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이 되면

저는 치열하게 살아간 여성들을 생각하며,

이미 세상을 떠난 절친했던 친구,

페미니스트 시인 고정화를 생각하며

올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다시 근본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단기적 경제 생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기르는 재생산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모성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욕망'(desire)을 제조해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리는 고도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개개인이 절실하게 원하는 '필요'(need)에 근거한,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위해 사회를 재편해야 합니다.

심각한 실업난으로 점점 암울해지는 시대에

청년세대는 무기력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이제 청년 세대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사회, 문화 산업, 창의 산업, 복지산업을 이야기 하지만

막상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 사회의 장년층들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지하기여,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전히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가부장들이

국가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여성들이 오랜 세월 그러했듯,

불안정한 삶 속에서 개별화 된 채

불안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본만이 자유로운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여자만이 아니라 청년들과 노인, 그 외 약자들을 여지없이
제도적 영역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간 노동소외를 이야기 해온 우리들은
이제 청년세대의 소외에 눈길을 돌리고,
늘어나는 노인세대의 소외에 눈길을 돌리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 노동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라져가는 '인간성'을 회복해내기 위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은 아마도 돌봄과 배려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윤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기업'이 아니라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일 것입니다.

다시 인간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함을 통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존속해왔음을 확인하고,
공동체적 삶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새롭게 삶을 일구는 일을 벌이는 우리들을 상상해봅시다.
아이들 먹거리를 챙기고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제대로 잡아가야 하지요,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거대 조직이 아니라 작은 마을, 작은 학교, 작은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상부상조의 동네, 상호 호혜 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면 합니다.

올해 3.8 대회가 성별, 세대별의 경계를 넘어, 사라져 가는 '사회'를 회복하려는
작으나 아주 큰 발걸음을 떼는 자리이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3월 8일 또하나의 문화 동인 조한 혜정 씀

(위 글은 축약본으로 전문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여성운동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Slogan 슬로건

14

한국여성노동자회 2004. 3. 15. 제10차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04. 3. 15. 제10차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무한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회양극화 심화,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과 폭력 등 어느덧 익숙해진 단어들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 63%,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67.6%,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 남성 한부모 가구주 보다 3배 높은 여성 한부모 가구주의 빈곤율, 희망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면 희망은 두걸음씩 물러서는 세상, 우리여성들은 사람·돌봄·상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만드는 대안세력이 되고자 한다.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의 노동권, 인권, 복지가 보장되는 세상, 흡수한 사회적 안전망,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의 사회화로 돌봄과 나눔의 생활공동체가 살아있는 세상,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세상을 여성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고자 한다.

3대 핵심가치 "사람·돌봄·상생"

'사람·돌봄·상생'은 개별 단어의 의미도 소중하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의미가 더 깊어진다. '사람'은 물질보다 중요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동체의 뿌리이다. '돌봄'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빛나는 배려·나눔·호혜를 말한다. '상생'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농촌과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 서로간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평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사람·돌봄·상생'이 서로 공존하면서, '성장지수'보다 '행복지수'를 소중히 여기고, 경쟁보다 돌봄이 더욱 소중하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키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이것이 바로 여성이 희망하는 공동체이다.

9대 과제 슬로건

-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 성평등한 가족정책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
-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 '차별금지법' 제정!
-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반대, 권익 옹호!
-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 강화!
- 식량주권 실현·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 보장!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
- 한번도 평화통일체제 구축!
- 한번도 대운하건설계획 백지화!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회

15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를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합니다

행사명 |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

일 시 | 2008년 3월 8일(토) 오후1시~5시

장 소 | 유관순기념관(이화여고), 서울시청광장

기획·실행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나다순)

주 최 |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 조직위원회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준),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농민회연합,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농민회연합, 경남여성회, 경북여성농민회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살림여성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회, 시천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여성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각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용인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의정부여성회, 인천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 전남여성농민회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농민회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의전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각장애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회(준),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농민회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일여성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건강연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햇순여성상담센터, 화성여성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을지키는여성회, 환경정의 (총167개 단체)

Program 프로그램

16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를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시민난장

담당단체 전국여성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1:00~5:00) 유관순기념관 앞, 서울시청광장

- **안내센터** : 자료집 및 기념품 배포 등을 위한 안내데스크
- **참여마당** : 얼굴스티커 배포, 여성단체 기념품 베풀기, 추억의 놀이마당, 인절미 떡치기&나눔마당, 아이들 놀이방(에어바운스), 포토라인, 여성운동 100년 타임머신 등
- **희망을 알리는 목소리(전시마당)**
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역사 사진기획전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시 및 박물관 건립기금모금, 한국여성노동자회(반근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대안생리대 판매, 여성노동문화 <이어달리기> 전시), 서울여성노동자회 · 전여노조 서울지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이랜드 · 뉴코아 · 기용전자 여성노동자 투쟁 관련 전시, 이시우 작가의 평화전시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식량주권 전시), 이주노동자들의 음식나눔 및 홍보 등
- **홍보부스 및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시민난장**
여성환경연대 유방암 예방 홍보부스, 경기여성연대,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물품 판매, 서울여성인권영화제, 여성연극 홍보부스, 북녘어린이영양병공장 홍보

3·8 여성축제 기념식

담당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30) / 유관순기념관

사회 : 김미화(여성연합 홍보대사 · 방송인), 김성주(아나운서)

- **오프닝공연** : 동북여성민우회 풍물패 '다누리', 고양여성민우회 '함께누리'
- **개회영상 상영** → **대회사** :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축제를 부처 → **축하영상 상영**
- **내빈 소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 수상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시위
- **3·8여성선언** :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 **축하공연** : <너름새> 안성찬, 한혜선 판소리 공연
- **참가단체 소개**

3·8여성퍼레이드, 시민축제

담당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3:00~5:00) / 서울시청광장 및 청계천 일대

사회 : 최광기(방송인) + 각 차량 진행자

- **퍼레이드 코스** : 유관순기념관(정동길) → 서울시청광장 → 청계천광장 → 서울시청광장
- **4개의 테마 퍼레이드카** : 여성들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퍼레이드카 행렬
"여성, 세상을 열다", "여성, 행동하다", "여성, 날아오르다", "새로운 공동체 사회"
- **4개의 색깔 있는 퍼레이드** : 파랑, 보라, 초록, 빨강
-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 시민축제** → **사전행사 및 오프닝공연** : 퍼포먼스그룹(주)노리단, 너름새
- **인사말** : 남윤인순 · 박영미 여성연합 공동대표
- **축하공연 1** : 가수 김장훈
- **축하공연 2** : 가수 미야
- **참가자 퍼포먼스**
- **여성희망한마당** : 여성노래와 율동이 어우러지며 폐회

사회 : 최광기(방송인), 권혜효(여성연합 홍보대사, 배우)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축제에 부쳐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외치며 투쟁한 날을 계기로 '여성의 날'이 선포되고 세계 곳곳에서 기념한 지 100년,

전국 각지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연대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께 우정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된 후,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연대로 다채로운 3·8 여성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문과 지역에서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추진하던 주체들이 '3·8 여성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기념식과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한세기 동안 여성들은 차별과 폭력의 장벽을 넘어 사회적 약자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정과 직장, 사회, 지구촌에서 당당하게 투쟁해왔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 인권, 노동권, 사회권, 자기결정권 등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속히 심화되며 사회 양극화, 빈곤의 여성화, 여성폭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새로운 위험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투쟁이 한 걸음 나아갈 동안,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탐욕,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더욱 빠르게 결탁한 결과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 새날을 열기 위해 수백년 굴종의 굴레를 벗어던지며 당당하게 나를 선언하고, 연대를 외친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기를 선언합니다. 경쟁과 효율로 점철된 세상, 인간의 존재 가치를 폄하하고 물질만을 숭상하는 사회를 넘어설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중받고,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며 나눔과 소통, 다양성을 인정하여 정신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 장애인,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 모두가 하나 되어 더불어 상생하는 평등, 평화의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한걸음 한걸음은 모두가 하나 되는 큰 걸음으로 이어져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여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여성들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들의 함성 속에 되살아나도록 소중한 연대의 한걸음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200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100년, 3·8 여성축제 조직위원회

3·8 여성선언

18

세계여성의날 100년, 3·8 여성축제를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100년 전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며 성과 계급을 뛰어넘어 연대하던 그 날,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평등, 평화의 새날을 열리기 시작했다.

1908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뉴욕 맨하탄에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당당하게 전개했다. 이를 계기로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며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오늘까지 100년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한세기 동안 우리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 폭력과 편견에 저항하며 여성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과 평등 그리고 평화를 확장시켜 왔다. 자본의 탐욕과 권력의 횡포, 전쟁으로부터 '빵과 장미'를 지키기 위해 여성들은 자매애로 연대를 실천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악육강식과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우리를 물질과 경쟁, 폭력과 차별, 불신과 대결 속으로 몰아가며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켜온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로 20대 80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20의 사람들이 가지는 소비를 통한 과시, 노동을 통하지 않은 부의 증식, 경쟁에서 승리할 것만을 주문하는 교육방식 등 왜곡된 사회,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 살고 있다. 세상을 바꿀 우리 여성들은 강요된 사회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다시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100년을 이어온 여성들의 외침을 계승할 지혜와 척박한 현실을 뛰어넘어 가치를 창조해야 할 역사적 임무가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자 한다.

하나, 사람과 사람이 물질적 이유가 아닌 호혜와 평등이 기본이 되어 서로의 존재가 더욱 가치있는 사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둘, 돌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배려와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돌봄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셋, 사람과 자연, 여자와 남자, 남과 북, 도시와 농촌, 이주민, 장애인, 소수자 등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생활과 지역, 직장 속에서 일상의 실천을 통해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고 노동이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여성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열어 나갈 것이다. 부문과 지역, 성과 계급을 넘어 한자리에 모인 우리는 오늘 사람·돌봄·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힘찬 출발을 선언한다.

세계여성의 날 100년 만세! 성평등 세상 만세! 여성들의 연대 만세!

200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100년, 3·8 여성축제 조직위원회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지역별·단체별 행사 안내

19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
이전,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세계여성의 날 100년, 경기여성대회

- ▶ 일시: 2008년 3월 21일(금) 오후 2시~5시
- ▶ 장소: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
- ▶ 주최: 세계여성의 날 100년, 경기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 프로그램
 - 난장
 - 기념축제: 개막영상/개회선언/참가단체소개/외부 축하공연/내부 축하공연/선언문 낭독/마당극패<갈판> 당신의 법은 따뜻합니까?

100주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경남지역 행사

- ▶ 일시: 2008년 3월 1일(토) 오후 2시
- ▶ 장소: 창원종합운동장 만남의 광장
- ▶ 주최: 경남여성단체연합
- ▶ 슬로건: 여성, 차별과 빈곤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 ▶ 프로그램
 - 사진행사: 100년 전 3월 8일 상황 재현/다양종 다문화시대극 나라 찬들의 상, 춤 재현하기/상차별을 뛰어넘는 간 돌리기 게임/바람개비 만들기(여성유권자의 바람을 아물에서부터)
 - 본 행사: 마당극패<갈판> 당신의 법은 따뜻합니까?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식/경기대회/길놀이(경남여성회 창원지부 동행해 해돋이)

세계여성의 날 100년 기념 3·8 대구경북여성대회

- ▶ 일시: 2008년 3월 6일(목) 오후 4시 30분~8시 30분
- ▶ 장소: 경북대 후문 복호관 강당(영진전문대-북한오거리-경북대 북문)
- ▶ 주최: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연합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참사아우름여성회 시인모임 전국조대구지부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반미여성회 참교육학부모대구지부 한국인권행동 민주노동 대구본부 대구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연대 경북여성노동회
- ▶ 슬로건: 여성! 빈곤과 차별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사회를 열자
- ▶ 프로그램
 - 거리퍼레이드: 영진전문대-북한오거리-경북대 북문
 - 식전축하공연
 - 기념식: 축하메세지 영상/개회사/민중의례/내빈소개/주최단체소개/대회사/대구경북여성운동상을 담은 영상무대/성평등 디딤돌 상 수상(이종수 할머니, 정안농산 여성노동자) 여성선언문 낭독/폐회
 - 축하공연 및 대동놀이
 - 부대행사(난장)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 광주여성대회

- ▶ 일시: 2008년 3월 2일(일) 오후 2시~4시 (3/7 100인 기자회견)
- ▶ 장소: 5·18공원 내 대동광장(우천시 5·18기념재단 대동홀)
- ▶ 주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 슬로건: 여성, 차별과 빈곤을 넘어 평등 세상을 열자
- ▶ 프로그램
 - 식전행사: 길놀이
 - 본행사: (여성대회) 여성의례/대회사/축하공연/현장발언/3·8상 시상/2008 여성선언, 마당극패<갈판> 당신의 법은 따뜻합니까? / 부대행사

2008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3·8 부산여성축제

- ▶ 일시: 2008년 3월 9일 (일) 오후 1시~4시
- ▶ 장소: 동야대 아트홀
- ▶ 주최: 2008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3·8부산여성축제 조직위원회
- ▶ 슬로건: 여성투쟁 100년,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 프로그램

- 기념식: 대박 공연 / 대회사 / 축사 / 참가자 및 내빈 소개
- 축하마당: 38인 노래공연 '우리가 만들어요' / 초청공연 1: '인들레' 노래패 공연 / 초청공연 2: 마당극패<갈판> 당신의 법은 따뜻합니까? / 소리꾼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
- 결의마당: 기록영상 '100년 여성사' 및 축하영상/참가단체 깃발 퍼레이드 / 2008년 여성선언문 낭독/단체 퍼포먼스
- 난장이당부대행사: 장터 마당/참여 마당/공감 마당/지지 마당

3·8 세계여성의 날 대전지역 캠페인

- ▶ 일시: 2008년 3월 5일(수) 오후 5시 30분~7시
- ▶ 장소: 대전역 광장(우천시 하나은행)
- ▶ 주최: 대전여인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노조, 대전여성학자협의회, 대전평화여성회
- ▶ 슬로건: 여성투쟁 100년,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 ▶ 프로그램
 - 기념식: 여는 인사/참가단체 소개/기념사/선언문 낭독
 - 축하공연: 율동
 - 연극공연: 마당극패<갈판> 당신의 법은 따뜻합니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08 충북 여성대회

- ▶ 일시: 2008년 3월 6일(목) 오후 2시
- ▶ 장소: 청주시 여성발전문화센터
- ▶ 주최: 충북여성연대(주)충북여성인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회, 충북여주여성 인권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농협)
- ▶ 프로그램
 - 기념식: 영상/수기발표 및 참가단체 소개/개회선언/대회사/축사/문화공연(한국, 노래, 사냥)

제주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및 사진전시회

- ▶ 일시: 2008년 3월 8일(토)~14일(금)
- ▶ 장소: 신산갤러리(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 ▶ 주최: 제주시
- ▶ 주관: 제주여인회, 제주영상위원회
- ▶ 프로그램
 - 기념식: 여는무대/내빈소개/2008 여성희망선언/영상물상영 - 여성의 삶 '희망' / 사진공모 수상작 시상/축하무대/민남의 자리
 - 사진전시회

100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3회 울산여성대회

- ▶ 일시: 2008년 3월 7일(금) 오후 2시
- ▶ 장소: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2층 대강당
- ▶ 주최: 100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울산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 프로그램
 - 본행사: 기념식/공모사업 시상/축하마당/대동놀이
 - 3·8여성주간 행사: 특강 -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하여/마당극 - 여성극단(해)재열전/ UCC, 글, 노래 공모사업 '성평등 세상 우리가 만든다' / 소외여성지원을 위한 울산명사 소장품 판매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지역별 · 단체별 행사안내

100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노동자회 행사

- 1) 마당극대 (갈판) 당신의 법은 따뜻합니까?
 ▶ 일시: 2008년 3월 1일(금)~3월 11일(화)
 ▶ 장소: 전국 10개 지역(마당, 광주, 인천, 부천, 대전, 대구 등)
 ▶ 제작: 한국여성노동자회
 ▶ 주요내용: 돌봄노동자로 일하는 한부모 여성인 극중 주인공 강화자가 겪는 돌봄 노동의 스트레스, 한부모로서의 어려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겪다가 투쟁으로 무기계약을 정취한다는 내용.

2) 온라인 캠페인

- ▶ 일시: 2008년 2월 25일(월)~3월 8일(토)
 ▶ 캠페인 사이트 주소: www.equality.or.kr (참여마당 → 일직한 상상)
 ▶ 주요내용: 여성노동자의 내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단상 작가, 2008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나의 결심 릴레이

3) 전시회

- ▶ 일시: 2008년 3월 4일(화)~5일(수) 오후 12시~8시
 ▶ 장소: 을지로 입구 역
 ▶ 전시내용: 여성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담은 사진 전시, 여성노동자들의 소망 글 전시 등

세계여성의 날 100년 전북지역 3·8 여성축제

- ▶ 일시: 2008년 3월 11일(화) 오후 5시 30분~7시
 ▶ 장소: 전주시 객사 마당 및 차 없는 거리
 ▶ 주최: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여성이 행복한 생계발달 퍼레이드(각 단체별 이슈를 시민들에게 알려줍니다)
 - 여성이 행복한 놀이축제(악밴드, 노래공연 및 춤 배우기) 마당극대 (갈판) 당신의 법은 따뜻합니까?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지역 여성축제 선언문 낭독
 - 주변행사: 성평등 세상을 위한 공동작업 발바닥 찍기, 여성노동 사진전 및 역사 문화 전시

'세계여성의 날 100년,

한국여성대회가 여성운동에 끼친 영향' 토론회

- ▶ 일시: 2008년 4월 초
 ▶ 장소: 추후 공지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열린 한국여성대회 관련 문헌을 연구, 한국여성대회가 여성운동에 끼친 영향과 힘의 역 대해 토론

3·8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와 dignified 삶을"

- ▶ 일시: 2008년 3월 8일(토) 오후 1시 30분~3시
 ▶ 장소: 시청
 ▶ 주최: 민주노총
 ▶ 프로그램
 모범조직상 시상/문화공연/집단 상징의식/선언문 낭독 등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 여성노동희망포럼 "여성노동운동, 날개를 달아라"

- ▶ 일시: 2008년 3월 4일(화) 오후 2시
 ▶ 주최: 민주노동 9층 교육관
 ▶ 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 프로그램: 각 단위별 여성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 토론/ 전문가 토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여성노동 배려하기' (이주희 박사, 은수미 박사) / 주제별 모둠토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세계연대집회

- ▶ 일시: 2008년 3월 5일 정오
 ▶ 장소: 일본대사관 앞
 ▶ 목적: 2007년 각국(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연합)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일본정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나간다. 국내는 물론 해외 공동 캠페인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하여 일본정부를 압박한다. 특히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인권 이슈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한 번 알리고 국내외 연대를 강화한다.
 ▶ 주관: 한국장신대문체대학협의회
 ▶ 슬로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 핵심구호: 여성폭력, 날려버려! 여성차별 없애버려!
 여성의 힘으로, 평화로! 전쟁 없는 세상, 여성의 힘으로!
 ▶ 세계연대행동: 일본(3/5, 3/7), 영국(3/5, 3/25), 필리핀(3/3, 3/5), 호주(3/4), 대만, 인도네시아
 ▶ 프로그램: 기자회견/문화공연/연대발언/생존자발언/성명서낭독/공동파모언스/일본대사관 돌기

축하나눔 · 감사인사

21

세계여성날 100년 기념품 나눔을
한국의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여성의날 100년 축하해요! 특별 문화나눔

→ 아름다운재단 세계여성의 날 100년 기념 특별 문화나눔

- 연극 '왕궁식당의 최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3월 7일 오후8시 / 8일 오후4시 / 9일 오후4시 매회20명)
- 연극 '보이책'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3월 4일 오후8시 40명)
-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대학로 학전 그린소극장 / 3월 7일 오후 7시 30분 40명)

→ 한국여성재단재단 3.8 여성축제 특별 문화나눔

- 연극 '사건발생 1980' (파파프로덕션 / 대학로 행복극장 / 3월 30일 오후6시 10명 / 31일 오후7시30분 10명)
- 연극 '연애에기아남' (축제물만드는사람들 / 대학로소극장 축제 / 3월16일 오후3시, 6시 각회당 30명)
- 연극 '민자씨의 황금시대' (파일커뮤니케이션즈 / 대학로 예술마당2관 / 3월 23일 오후3시 공연30명)
- 연극 '산불' (문화기획 연 /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 3월 19일 공연 오후8시 50명)
- 난타 (PMC프로덕션 / 우림청담씨어터 강남전용관 / 3월 21일 오후8시 공연 20명)
-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PMC프로덕션 / 대학로자유극장 / 3월 25일 오후8시 공연 4명 / 3월 28일 오후8시 공연 6명)

사이버

- 사이트 개설 <http://town.cyworld.com/kwau>
<http://cafe.naver.com/38women>
- 배너달기 캠페인 진행
- 일촌맺기 이벤트 진행
- e-card 제작 · 발송

협력프로그램

→ 서울문화재단 〈문화는 내 친구〉 여성전용투어프로그램 공동진행

- 일시 : 2008년 3월 27일 목요일
- 내용 :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친구가 되자는 취지의 시민문화체험 투어프로그램으로 세계여성의날 100년 3·8 여성 축제를 기념하여 당일 행사를 여성전용투어프로그램으로 진행. 여성 컨셉의 박물관 투어, 아틀리에 투어 등 여정

3·8 여성축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화인스틸

학교법인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외국어고등학교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기념품 나눔을 해주신
유한킴벌리, 애경

Award 올해의 여성운동상

22

세계여성평화 100년 3·8여성운동상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꿈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800번의 함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시위

선정이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견인차가 된 수요시위

2008년 2월 27일(수) 현재 800차, 16년간 지속되고 있는 수요시위는 1992년 이여자와 일본총리 방한일정에 맞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2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제인해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가장 큰 함의는 이 문제가 전쟁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 있다. 또한 역사 속에 묻혀있어야만 했던 문제의 진실과 슬픔이며 지내어만 했던 피해자들의 삶은 사회가 여성을 보는 인식이 어떠한가를 대변해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초기 '민족의 우차'라며 세뇌한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 앞에 여성들의 요구와 외침은 용기 있게 시작되었고, 이는 '수요시위'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견인차라고도 할 수 있는 수요시위는 여성들이 조직하고 연대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여성인권운동의 대표사례로서 16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이어온 자력만으로도 여러 운동의 귀감이 될 만하다.



전쟁의 생존 피해자가 당당하게 운동의 주체가 된 수요시위

무엇보다 수요시위가 이루어 낸 가장 큰 업적은 한 평생을 피해 생존자이면서도 과거가 밝혀질까 두려워하며 직인처럼 지내어왔던 피해자들을 당당한 운동의 주체자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자신의 목소리로 명예회복을 외치고 수요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직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인식하게 되고 수치심을 극복하게 된 것이다. 수요시위장에서 외치는 피해 생존자들의 모습은 수요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전쟁피해의 경험 지이자 여성폭력의 피해자, 여성평화운동가로 다가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이 써온 희망의 역사와 또 그 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요시위의 힘은 국내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으로 억압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평화와 여성인권교육의 장이 된 수요시위

초기에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냉담한 시선을 받기도 했던 수요시위는 긴 세월을 이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일구어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방관자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로, 거리의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나 여행객들의 참여가 늘면서 자신의 문제, 나아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할머니들의 주체적인 모습과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 역시 평화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 역사의 교훈을 수요시위라는 작지만 힘이 넘치는 공간에서 배워가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쉼 없이 16년간 800회가 넘게 이어온 수요시위는 이제 연령과 성별 그리고 국적의 경계까지 넘어서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은 물론 여성인권 신장과 평화·평화 세상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어 평화운동과 여성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평화와 여성인권의 국내·외 연대의 장이 된 수요시위

수요시위는 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평화운동, 여성운동의 국내외 연대의 장이 되었다. 일본군 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북한, 중국,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군위안부 피해국들과의 연대, 수요시위에 대한 관심으로 설립된 '위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의 설립과 그에 따른 미주지역 연대, 91년부터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국제공청회, 93년 세계인권대회 공동참여 등의 남북연대 활동, 북한 감동의 순간이었던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활동(남북, 중국, 일본, 필리핀 등 10개국 공동진행) 등 수요시위를 계기로 다양한 국외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부터 전정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각 나라로 퍼져갔다.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덴마크, 이스라엘, 몽고,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에서도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매 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수요시위가 특별한 날을 맞을 때면 언제든지 든든한 연대 시위를 펼쳐준다. 수요시위는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들어진 연대의 역사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10여명이 참가하던 수요시위가 지금은 평균 30-4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시위로, 특별집회에는 800명이 넘게 참가하는 시위로 성장했다. 때로는 주권단체로, 공연자로, 자원활동가로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참여하고 있는 수요시위는 여성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세계 속에 빛나고 있다.

수요시위 주요 연혁

- 1992. 1. 8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1차 수요시위 개최
- 1992. 12. 1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 발족식 수요시위
- 1996. 5. 29 히시모토 일본 총리에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 전달 수요시위
- 1993. 12. 22 100차 수요시위 /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탑골공원까지 행진 함
- 1998. 2. 18 300차 수요시위 / 문화공연과 사진전시 등으로 300명 참가해 진행
- 2000. 3. 1 400차 수요시위 / 교보빌딩 내 소공원에서 800여명 참가해 진행
- 2000. 8. 9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위한 캠페인 시작(남북 북의 공동기소작성 결의를 알리는 422차 수요시위)
- 2000. 9-12 2000년 법정성공을 기원하는 전국 릴레이 수요시위(서울, 광주, 대구, 부산, 창원)
- 2001. 3. 14 일본역사교과서개정작지를 위한 인간띠 잇기 451차 수요시위
- 2001. 8. 15 56주년 8.15기념 및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규탄 및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한·일 연대 수요시위
- 2003. 6. 4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즈음하여, 올바른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연대 수요시위
- 2004. 3. 17 600차 수요시위 /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평화를 알리는 600인 선언 대만, 필리핀, 일본, 미국, 스페인, 벨기에, 독일 등 8개국 30개 도시에서 공동개최
- 2005. 1. 19 '해방 60주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를!' 캠페인 발대식 및 641차 수요시위
- 2006. 3. 15 700차 수요시위 / 국내 50개 단체, 국외 8개국 14개 도시에서 연대하여 진행
- 2006. 8. 9 해방 61주년 8·15 특별집회 / 캐나다, 홍콩, 네덜, 미국 등 27개 지부에서 개최
- 2007. 7. 30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공식 사죄와 역사교육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2007. 11. 20 네덜란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2007. 11. 28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2007. 11. 13 유럽연합 의회에서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성노예제도 사실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2008. 2. 13 800차 수요시위 개최



올해의 디딤돌

24

세종대입의 날 100년, 3·8여성의 날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기



부당하고 성차별적인 강제퇴역 처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피우진 중령

유방암 투병 후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된 여성혈기조증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유방암 수술 뒤 아무 문제없이 혈기 조증을 계속해왔으나, 국방부는 단지 두 가슴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2등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퇴역을 통보했다. 피우진 중령은 강제 퇴역을 통보 받은 뒤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등 국방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처사에 맞서 싸워, 2007년 10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아냈다. 국방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복직이 미루어진 상태에서 피우진 중령의 투쟁은 성역화 된 군대의 경직된 관료주의와 성차별을 공론화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군대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노조 결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울산과학대 청소미화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2월 23일,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들은 울산과학대에서 청소를 하시는 50~60대 여성노동자들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다.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하고, 휴게실도 없이 남자직원들이 틀러거리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한 채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울산과학대 측은 여성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툼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등 평생 씻지 못할 치욕과 수모를 주었다. 그함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이어온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5월 9일 전원 고용보장을 이뤄냈다.

울산과학대 청소미화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법 독소조항인 외주화와 용역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상대로 투쟁하여 승리한 것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여성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인화학교(광주 청각장애인특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부모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학교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교장, 행정실장, 교사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2005년 세상에 알려지자 광주인화학교학부모회를 비롯한 2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를 구성,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일대일로 면담하여 성폭력 증거 확보 및 추가 성폭력 피해 사례를 찾아냈으며 미온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당국에 맞서 인권위의 진정을 내어 권고를 받아냈고, 촛불집회, 삼보일배 등을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대책위는 사건 이후에도 여성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3년여의 대책위 활동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함께 학교법인 민주화, 교육권 행취(교사들의 수화통역자격취득 요구, 시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 설치 등) 등 여성청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의 걸림돌

25

세월이 흐른 뒤 100년, 3·8 운동의
여간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대량해고 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박성수 회장은 2007년 6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랜드, 뉴코아 유통업 계약직 노동자 1,000여명을 대량해고 하고 계산직 업무를 외주화 하였다. 계약직 노동자 1,000여 명 중 90%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외주화된 계산직 업무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2000년 까르푸 인수 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으로 판법적이고 부당한 해고였다. 또한 박성수 회장은 구사대와 용역폭력 강파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방해하고, 노조 지도부 간부들을 고소고발 및 해고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사건과 상관없는 누드사진 게재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문화일보 편집국장

2007년 학원위조 문제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신씨 사건을 보도하면서 문화일보는 2007년 9월 13일 근거 없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그 증거로 신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다. 여성단체 및 언론단체 등은 이와 같은 보도행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폄하하는 등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개사과와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10월 18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치밀한 취재와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문을 게재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편집국장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곧 반려, 편집국장은 출근을 재개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위헌결정 받은 군가산점 부활안을 발의한 고조흥 국회의원

고조흥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군가산점제 법안은 2008년 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고조흥 의원은 '가산점의 비율을 99년 5%였던 것을 2%로 줄이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을 전체 합격인원의 20%로 줄여 위헌요소를 없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가산점이 부활될 경우 거의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여성과 장애인, 군이필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은 왕조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조흥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고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가산점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복무기간에 따른 호봉인정과 연금크레딧 적용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으며, 군가산점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극히 일부의 제대군인에게 적용되는 제한적 제도임을 망각하고 불필요한 성대결단을 부추겼다.

Photo 사진 공모전

26

세계여성의날 100년 3·8 여성축제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신문사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축제 사진공모전 〈사진, 여성을 말하자〉

출품기간 | 2006년 2월 4일(월) ~ 23일(토) (20일간)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신문사

공모주제 | 여성, 현실과 인식 사이 "이 정도면 좋아졌다 vs 그러나 아직 멀었다!"
여성, 새로운 공동체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여성, 존재의 이유 "여성에 대한 모든 것"

심사위원 | 정대웅 여성신문사 사진기자, 박김형준 사진작가,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전시 | 세계여성의날 100년 3·8 여성축제 시민난장 부스



수상작 - 1등

아름다운 모정 - 희망

김강배

"여성의 존재 의미는 종족 보존의 의미가 아니요 더구나 남성을 위한 일이 더욱 아니다.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분명하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끝없는 사랑으로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만드는 여성들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상작 - 2등 여성의 손 최민영

"우리 엄마 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거친 손. 오랫동안 일한 손. 미싱질을 하여 몇 번이고 바늘에 찔렸을 우리 엄마 손. 거친 손이지만 참 아름답고 귀한 손이다. 우리 남매를 위해 살아오신 내 어머니의 손이다."



수상작 - 3등 비혼들의 비행 이다정

"비혼들의 비행이란 저희들의 모임 이름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했수로 8년째인데요, 여성주의를 지향하고 '피로'도 같이'를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진은 2004년을 보내고, 2005년을 맞이하는 모임에서 회원들과 선물교환을 하고, 각자가 받은 선물들과 함께 기념하는 사진을 찍었던 날입니다."

Staff 함께하는 사람들

출연진



3·8 여성축제 기념식 사회
김미화 | 방송인 · 여성연합 홍보대사



3·8 여성축제 기념식 사회
김성주 | 방송인



3·8 퍼레이드 · 시민축제 사회
최광기 | 방송인



시민축제 사회
권해효 | 배우 · 여성연합 홍보대사



시민축제 축하공연 김장훈



시민축제 축하공연 마아



3·8 여성축제 기념식 축하공연 너름새



동북여성민우회 통통과 다꾸리



고양여성민우회 함께누리

후원단원

연출팀

총연출 | 유수훈(주)D&A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연출 | 홍수진(주)D&A엔터테인먼트 팀장

퍼레이드 연출 | 홍기훈, 이연(귀어문화축제)

기획 | 조이현임(여성연합 활동가)

총진행 | 김금옥(여성연합 사무처장)

- 조직팀 | 김은희(운영국장), 김이람(조직부장), 김현아(활동가), 김지연(인턴활동가), 최고은(인턴활동가)

- 정책홍보팀 | 박차옥경(사회권국장), 김은경(정책부장), 한창주연(활동가), 유일영(활동가), 성편(인턴활동가), 와와(인턴활동가)

음향 | 스카이 사운드

판소리대본 | 김영만 시민축제 축하공연 | 퍼포먼스 그룹(주) 노리단

영상제작 | 조대희PD

연출자문 | 김노암(아트스페이스 휴 대표), 김연호(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 대표), 오성화(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동대표)

디자인 | 큰사람디자인

자원활동가 | 고진영 · 박은진 · 김기연 · 김보미 · 김신애 · 김지혜
김지혜 · 김진아 · 김진영 · 김현주 · 김혜연 · 나혜선
문수혁 · 문지숙 · 민경도 · 민현주 · 박유리 · 박은정
박은진 · 박찬수 · 박희진 · 박진아 · 성하예 · 심민정
심아현 · 심화영 · 양산진 · 엄상진 · 유정민 · 이샘물
이슬기 · 이유희 · 이종원 · 이진영 · 이화나라 · 이혜운
이희원 · 정영배 · 정이슬 · 정한나 · 정혜수 · 진지웅
최나영 · 최예나 · 최지은 · 황다운 · 황보경



자원활동가



세계 초일류 공항을 향한
인천국제공항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2005
국제공항협의회(ACI) 선정 세계 최고 공항

2006
국제공항협의회(ACI) 선정 세계 최고 공항

2007
국제공항협의회(ACI) 선정 세계 최고 공항

세계 어느 공항도 이뤄내지 못한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3년 연속 1위!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3만5천 인천국제공항 가족의 열정이
마침내 세계 공항사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2단계 그랜드 오픈과 함께 항공운송은 물론 물류,
비즈니스, 쇼핑,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공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글로벌 코리아의 새로운 성장엔진,
인천국제공항에서 21세기 미래공항의 모습을 먼저 만나보십시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도시공사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가장기 좋은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
경기도도시공사가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신도시 광고신도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끌 경기뉴타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 파주LCD클러스터,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자연&아파트까지-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 대한민국의 보다 힘찬 성장엔진 경기도가 되기 위하여
경기도도시공사가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기도도시공사 대표이사 사장 한성주

경기도도시공사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뜻하는 '가'와 '한'의 원문 '서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경기도와 어울리는 'G'을 표현합니다.
또한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형성되는 'C'는 도시City를 창조Create하는 공적cooperation을 뜻하고 있습니다.

광고명품신도시 조감도



| 브랜드 Challenger - 사회봉사단 트리플 봉사상 수상 | 대교협 평가 사회봉사부문 최우수대학, 한국자원봉사협의회·미국대사관 공동 주관 '우리마을지킴이' 공모전 대학부 1위, 국정홍보처 주관 해외봉사팀 경연대회 '2007네팔봉사대' 최우수상 수상

뜨겁게 끌어안아야 합니다. 은 세계를!

사랑은 행동이다

선입관을 버려라

실천으로 대화하라

당신의 체온을 나누어라

마음을 나눈 세상 모든 이가

당신의 브랜드 파트너다

女子가 아닌 女自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브랜드 파트너! 덕성여자대학교

- 200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결과 약학대학 취업률 1위, 약사고시 합격률 2위, 교수당 특허 5위, 교수당 논문수 7위
- 2007년 한국대학신문 경쟁력 대상 교육중심 우수대학 수상
-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특성화사업대학교 선정 _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사각디자인 / 실내디자인 / 섬유미술 / 의상디자인전공)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음식물 쓰레기, 껍데기는 가라?

우리 가정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잘못 버리면 악취와 오수의 배출로 병원균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야겠는데, 막상 쓰레기를 분리하자니
헷갈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축이 먹을 수 있으면 OK!

기준은 간단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알고 보니 쉽죠?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곡 류** : 왕겨(벼의 겉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기 타** : 계란 등의 '알껍데기'
각종 차(茶)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수도권매립지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OECD 한국환경성과평가 보고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국제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 되었으며 시민들, 외국인들의 발길이
한 해 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화 안내 : 032-5609-430)

우리 환경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www.SLC.or.kr

건설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우림이 도전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은 모험이라는 생각!

건설사는 건물만 잘 지으면 된다는 편견! 우림이 바꾸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석유, 가스,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금융, 무역, 레저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림은 고객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경을 넘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도 우림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Great Challenge! 글로벌 우림





MOVE for

「사랑의 한술밥」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사랑의 쌀 나눔 택시봉사대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이신 택시기사 권태순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없는 장거리 운행을 나섭니다.
생각이 같은 회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사랑이 담긴 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오는 길, 마티기 숫자는 0이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현대자동차는 응원합니다.

함께, 세상을 움직이네라

Got Stress?

마르포자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가장 통쾌한 방법



마사박물관



승마체험장



꽃마차



경마



자연체험관



가족공원

KRA 서울경마공원

보험은 다이아몬드처럼
당장 빛나지 않습니다

보험은 부동산처럼 어느 날 폭등하지도 않습니다. 주식처럼 갑자기 오르는 일도 없습니다.
보험은 눈앞의 화려한 재테크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이 외롭고 힘들 때 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꽃이기 때문입니다.

KYOBOKYO
교보생명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람객 중에 그림 앞에만 가면 키를 낮추고 그림을 올려다 보는 키 큰 신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관람객들이 그의 감상법을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내일 학생들과 함께 이 박물관에서 현장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는 중입니다. 그래야만이 학생들에게 그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키를 낮춘 선생님”



어린이의 눈높이를 이해하려고 키를 낮춘 눈높이선생님.

어른들의 규범과 사고를 강요하기 보다는 어린이의 세계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문화기업 대교, 고객의 사랑으로 31년간 눈높이 사랑·눈높이 교육을 실천해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생명보험 동부생명

“당신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젊고 정직한 회사 -



동부생명



새로운 봄이 온다
우리 부부는 한 살 더 먹었지만
한 살 더 젊게 살기 위해 새로운 봄 옷을 골라 본다

오늘도 모임에서 나이를 거꾸로 먹느냐는 칭찬을 들었다
인사치레인 줄 알면서도 괜스레 기분이 좋다

지혜로운 쇼핑은 당신을 웃게 합니다



여성이기 못하고 여성이기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여성을 기록하고 여
 성이기 못하고 여성이기
 고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성평등 도서관 여
 기록하고 여성을
 을 기록하고 여성을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
 여성이기 못하고 여성이기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
 등 서 관 여 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한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도 흐름을 잃는다"



배움은 숲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이면 푸른 숲처럼 생각 자라나고 가을이면 잘 익은 밤처럼 생각 여우는 아이들, 숲이 없는 학교에서라면 가능할까요? 학교담을 허물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가꾸어 온 학교숲, 이제 학교 숲 운동에 3천여개 학교가 뜻을 같이 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푸르게 푸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숲의 푸름이 무성해질수록 아이들의 생각도 커갑니다. 숲에서 느끼고 배우며 자란 아이들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은 얼마나 푸르게 빛날까요. 바로 우리가 학교숲을 가꿔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숲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키웁니다.

학교숲이 아이들을 푸르게 합니다

 유한김벌리